

## 한불합작 다큐 '핑크레이디'의 파비앙 아담 감독을 만나다



최근 부쩍 한국 영화가 프랑스에 소개되고, 프랑스 영화가 한국에 소개되는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과 프랑스의 서로 다른 두 문화를 한 영화에 담은 "Pink Lady" 영화와 그 영화 감독인 파비앙 아담(Fabien ADAM)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는 2008년, 프랑스, 마르세유에서 한국, 부산까지 기차로 시베리아를 거쳐 촬영한 "Where are you going?" 영화의 감독이기도 하다.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이자 예술 비디오이고 특별히 이 작품은 유럽 13개의 페스티벌에 초청이 되었고, 2010년 한국 프랑스 문화원 초청으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5개 도시에 상영되었다.

한국과 프랑스의 이야기를 담은 그의 두 번째 영화가 Pink Lady이다. "핑크 레이디"라는 가명을 가진 70세 가량의 할머니와

그의 큰 언니인 90세 가량의 술량주가 운영하는 레스토랑과 유스호스텔의 이름이다. 이 곳은 일명 "한국 아줌마" 스타일의 왓지컬하면서도 서민적인 그리고 아줌마들의 포스가 느껴지는 곳이기도 하다.

많은 사람들의 우연적이면서도 자연스런 만남이 이루어지고 프랑스 서민적인 향기가 지극히 느껴지는 이곳에 '강우준'이라는 한국 젊은 청년이 오게 된 후 그가 겪어 되는 좌충우돌의 이야기를 담은 50분짜리 다큐멘터리이다.

작년에 이 영화가 프랑스 "Cinéma Brut" 국제 영화 페스티벌에서 "Brutal d'or"라는 대상을 받았기에 감독과의 인터뷰에 더 많은 질문이 쏟아져 나왔다.

지금부터 감독의 이야기를 들어 보도록 하자.

- 핑크 레이디(Pink Lady)가 무엇을 뜻하는 거죠?

감독 : 핑크 레이디는 영화

제목인 동시에 영화가 촬영되었던 유스호스텔과 레스토랑 그리고 그 곳 주인 아주머니의 가명이기도 해요. 저는 그 곳 단골 손님이었는데 갈 때마다 머릿속에 이곳의 이야기를 영화 혹은 사진으로 담고 싶었어요.

- 핑크 레이디가 쉽게 영화 촬영에 동의 했나요?

감독 : 쉽지 않았죠. 처음에는 핑크레이디가 영화 촬영에 동의를 하지 않아서 제가 유스호스텔만 촬영하겠다고 하였는데 그 후로 핑크 레이디가 제가 촬영하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촬영에 함께 해주셔서 아주 자연스럽게 촬영하게 되었어요.

- 왜 한국 사람을 선택하게 되었나요?

이 영화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영화 속의 모든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촬영하였어요. 영화 주인공인 우준만 캐스팅을 통해서 찾았어요. 영화 촬영지도 정해졌고 핑크 레이디 아주마도 정해졌고 즉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그 가운데 젊은 아시아 사람만 남게 되었어요. 아시아 사람이 핑크레이디와 그 촬영 장소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했죠.

- 영화에서 왜 아시아 사람이 핑크레이디 유스호스텔의 분위기와 적절하다고 생각했나요?

감독 : 아시아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의 문화가 다르잖아요.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났을 때 상대방 문화의 모습을 더 자세히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유럽 사람들에게 없는 아시아 사람들의 문화와 아시아 사람들에게 없는 유럽 사람들의 문화가 만나는 곳이 영화 Pink Lady의 촬영지입니다.

영화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우준이가 촬영가운데 사진을 계속 찍었어요. 그 사진은 영화에 직접 쓰이기도 했어요. 우준이가 정말 자연스럽게 영화를 찍었어요. 이 영화는 처음과 끝만 시나리오가 있어요. 즉 우준이가 어떻게 니스에 도착했고 어떻게 니스를 떠나지만 짜여져 있고 나머지는 시나리오 없이 모두 자연스럽게 촬영되었어요.

우준이가 니스에 도착해서 핑크레이디 장소를 찾는 것만 제가 요구했어요. 그 촬영 때 힘들었던 것이 우준이가 핑크레이디 장소를 찾아 가는 길을 몰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핑크레이디 유스호스텔 장소를 몰랐어요. 이것은 영화를 보시면 아실 수 있기도 해요. 결국 제가 핑크레이디 주소를 줄 수밖에 없었죠.

핑크레이디와 우준은 영화 촬영 전에 한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두 사람의 첫 만남은 라이브로 촬영되었고 이 영화는 픽션에 가까운 다큐멘터리인데 이것은 많은 편집에 의해서 그렇게 보인답니다.

- 핑크 레이디 아주머니의 모습이 실제와 영화 속의 모습이 같나요?

감독 : 처음 영화 촬영 때는 아주머니가 본인의 유스호스텔과 레스토랑을 깨끗하

게 보이기 위해서 정리 정돈을 깔끔하게 하시더라고요. 꽃도 놓으시구요. 그러나 영화 마지막에 보시면 꽃도 없고 서류들도 책상 위에 정리되지 않은 채 그대로예요. 핑크레이디의 그런 모습을 잘 아는 그의 언니인 술량주도 핑크레이디가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다고 영화 속에서 말하죠.

- 작년에 Brutal d'or 인 대상을 받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감독 : 프랑스의 많은 영화제에 응모를 했어요. 영어 자막이 아직 없어 다른 나라 영화제에는 보내지 못했구요. 이번 영화는 노르망디에서 있었던 '유럽 영화제'때 선정이 되어 소개가 되었고, 프랑스 남부에서 있었던 국제 영화 페스티벌인 'Cinéma Brut'에서 대상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대상을 받은 것에 너무 감사하고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요. 제가 대상을 받았을 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 것 같았어요. 그거 하나만 보고 달려왔거든요.

특히 작년 그 영화제때 상종류를 2개나 더 늘려야 할 정도로 정말 좋은 영화들이 많이 응모되어 대상 선정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더욱이 감사하고 아직도 대상 받을때 그 감동을 잊지 못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 중 대표분께서 영화제가 끝나고 저에게 찾아와 프랑스에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다큐멘터리 감독이라는 과찬의 말씀까지 나누어 주셨답니다.

St-Anne 클리닉에 문술 인, 시로순 분위기 부담없는 가격의 진통 한식당

아씨 Restaurant AHSSI

Reservation : 01 42 60 95 54

14 rue Therese 75001 Paris

Restaurant Coréen

**KIM&KIM**

<NATION>에 전통한식 김가

SPECIALITÉ

불낙구이, 불낙전골, 낙지볶음

Tel. 01 4370 2240

15, rue Chevreul, 75011 Paris

M(12,69), RERA, Naton M9), Rue des Boulets

Ouverture : Fermée le Dimanche

**KTEL** 케이에프엘은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를 약속 드립니다.

K- Freight Leader

Logistic Solution

항공/해상 큐빅이사 전문

수출입화물    포장 보관    특화서비스

이주 화물    주재원 이사

전시회 임시통관 및 부스배송, 예관통관, 식음, Perishable Cargo 수출입, 영탁가구 및 예술품, 안전포장, 통관예습

Fret 5 - 14 rue de la belle borne    Tel : +33 (0)1 4947 4919    www.kfifnetwork.com

- 곧 "핑크 레이디" 영화를 만나 볼 수 있나요 ?

감독 : 영화는 여기 사이트에서 [Http://the.pink.lady.free.fr](http://the.pink.lady.free.fr) 무료로 보실 수 있고, 유럽 페스티벌에서도 보실 수 있으세요. 영화팬들은 영화 DVD를 직접 구입하셔서 보실 수도 있으세요. DVD에는 영화 촬영 뒷 이야기도 함께 있습니다. DVD는 파리의 DVD판매점인 Hors-circuit, Potemkime등에서 구입 가능합니다. 또한 이 판매점에서 마르세이유-부산을 잇는 영화인 "Where are you going ?" DVD 또한 보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감독과의 인터뷰가 끝난 후 그는 자신이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1973년 파리 태생으로 화방을 운영하는 가정에서 태어나 비즈니스 스쿨을 졸업하고, 영국에서 어학 연수 중 음악과 미술이 주는 대중에게 주는 큰 감동을 느껴 독학으로 예술 공부를 시작하였고 후에 영화 학교에서 연수 과정까지 받게 되었다. 엘렉트로닉 음악에도 대단한 열정을 느껴 직접 1995년 ~ 1996년도 사이에 Free-party를 개최하기도 하였고 음악과 미술 등 예술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가운데 "One trip" 이라는 책을 2005년도에 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은 일 년 동안 아시아를 여행한 후 쓴 여행 기행문으로 유럽 사람인 파비앙 아담에게 또 다른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아시아를 여행하면서 느낀 이야기를 담은 책

이다. 이 책에는 그가 아시아 여행 중 그 곳의 소리와 음악들을 직접 녹음한 CD와 사진이 부록으로 담겨져 있기도 하다.

그의 첫 번째 영화인 "HLP 6107"은 2006년도에 제작되었고 그 다음 2008년도에 프랑스, 마르세이유에서 한국, 부산까지 기차로 시베리아를 거쳐 촬영한 "Where are you going ?"이다. 그리고 그의 최근 영화가 앞에서 말한 "Pink lady"이다. 서로 다른 문화의 이야기를 한 영화에서 볼 수 있는 "Pink Lady"가 기대되고 아래의 영화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볼 수 있다. [Http://the.pink.lady.free.fr](http://the.pink.lady.free.fr)

<파리지성>